약인가? 독인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예상 밖으로 심각한 모양이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의외로 커 관련 금융기관이 부도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면서 미국 주가가 폭락했고, 그렇지 않아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미국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정책이 부실대출을 키웠기 때문으로, 2008년에 그치지 않고 2009-10년까지 세계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은 2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먼저, 미국경기 후퇴에 따라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석유 소비가 줄어들어 국제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국제유가가 급등을 넘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함께 세계 석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실적으로 미국의 날씨 변화에 따라 국제유가가 심하게 등락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변화에 미국의 석유 수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의 국제유가 초강세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중국과 인디아 등 신흥 경제성장국의 석유 수요증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친다고 국제유가가 급락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미국 경기가 후퇴하면 미국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이나 인디아 경제가 후퇴할 것이 분명하고 이어 세계경제 전체가 불황국면에 접어들어 석유 수요가 급감함으로써 국제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경기후퇴와 석유 수요감소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폭락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국제 상품가격의 등락이 전체 수요의 2-3% 증감에 따라 크게 변하는 특징 때문에 배럴당 90달러 중반에서 50달러 안팎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음으로 거론할 수 있는 요인은 미국경기 후퇴가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글로벌 상품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다.
글로벌 상품 교역량이 세계 수요의 5-6%에서 최대 10-1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경기 후퇴에 따른 충격이 세계 수요에 2-3% 영향을 줌으로써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가격은 총수요의 10-15%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써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의 10-15%가 변화하면 크게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원자재 수입가격 급등,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국내경제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약으로 작용할지, 독으로 작용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 화학산업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약보다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제유가 하락은 나프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연이어 석유화학제품 가격폭락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국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 급등하고 하락국면에서는 구매기피로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경기가 후퇴하면 미국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고 곧이어 중국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극심한 공급과잉으로 가동률 감축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구조재편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중동의 신증설 프로젝트가 2008년부터 서서히 완료돼 2009-10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 코스트 경쟁력이 낮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릴 수도 있다.
다만, 달러화 약세로 미국이 화학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되면 국내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화학저널 2008/1/21>